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일개미 선지식

곤충의 세계에서 얻은 지식 하나 옮겨야겠다. 일개미의 수명은 대충 6개월인데 몹쓸 병을 앓는 개미의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이다.

병이 깊어 가면 앓는 개미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 다른 일개미들이 접근을 꺼리도록 경계한다는 것이다. 병의 전염을 염려한다는 뜻으로 고약한 냄새를 발산한다는 것, 병든 개미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온힘을 다해 개미굴을 빠져나와 개미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죽은 시체로 인해 병균의 오염과 전염을 막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해 병든 몸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와서 쓸쓸히 죽는다는 것. 텔레비전의 화면을 지켜보며 개미조사(祖師)의 죽음에 가슴이 먹먹하였다. 곤충의 세계에도 생명의 질서와 생활의 도(道)가 생생하게 교훈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몹쓸 병을 앓고 있는 일개미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 동료들이 가까이 오면 병이 옮길까봐 나쁜 냄새를 풍기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에는 얼마만큼의 독한 의지와 아픔이 있었겠는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동료들은 멀리 있고 따뜻하게 마주해 손잡아 줄 개미도 없이 처절하도록 외롭고 아픈 나날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절대 고독과 싸우는 일개미의 더딘 동작에서 왈칵 서러워지며 눈물이 났다. 가슴이 짜릿 짜릿 아파왔다.

지칠 대로 지친, 풀어질 대로 풀어진 병이 깊은 몸을 추슬러 한 걸음, 한 동작 매우 더디고 힘겹게 옮겨 개미집 밖으로 나와 생명의 마침표를 남기는 개미의 죽음에 누구라도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터.

평소,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 스스로 기본적인 행장을 챙겨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죽음을 앞당겨 마감하리라는 다짐을 굳혀 오던 터이다.

누구누구가 찾아와 죽음을 애도한들 부질없는 분주함만 더하는 일이요 꽃상여, 만장(輓章)이 행여 준비된다면 죽음을 더욱 욕되게 할 뿐이다.

화장(火葬)하면 나올 사리(舍利)도 없겠지만 뼈 조각을 추슬러 담아 추모한답시고 부도탑(浮屠塔)을 세우는 번거로움도 지극히 허무의 놀음일터. 왔다가 놀다가 가면 그 뿐, 흔적 찾아 흔적을 모아 흔적을 남기는 일은 부질없는 그림자놀이 일 뿐.

살아서도 시은(施恩)으로 살던 사람이 죽어서도 시은(施恩)으로 부도 따위의 기념비를 남긴다면 집착의 부끄러운 그림자를 길게 남기는 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개운하게 진솔하게 말끔하게 당당하게 살다 빈손으로 흔적없이 사라지면 그 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철저히 사무치게 철이 들어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되는 것이다.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순수한 진실의 언어와 행동이 따르는 것이다.

모으고 챙기고 쌓아두려는 속물근성으로 명예와 명분을 앞세우며 이름 석자 알리는 일에 헐떡이고 흔들린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일리 만무하다. 어쩌다 보니 연륜이 쌓여 고승(高僧)대접 받고 선지식(善知識) 흉내내는 부끄러운 일이 늘고 있으나 자중자애 하여 회광반조(廻光返照)할 일.

고승되면 가사 색깔 달라져야 하는가
병든 일개미서 참된 선지식을 본다

고승(高僧)이 되면 몸에 걸치는 승복과 가사(袈裟)색깔이 달라져야 하는지 조심스레 되묻고 싶다. 고승과 선지식은 참사람을 의미한다. 참사람이란 사람다운 사람을 말함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이다.

꾸미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머물지 않는다. 속이지 않고 속지 않으며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다.

모으거나 챙겨 쌓아두지 않으며 나누는 기쁨으로 집착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고마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해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부끄러움 남기지 않는 당당한, 평화로운 사람이다.

방편을 앞세워 세력을 모으거나 현실적 타협을 핑계로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지식은 사람다운 참사람의 선지식이다.

일개미의 병든 모습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또 하나의 선지식을 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유불선 삼교의 소통, 虎溪三笑
〈호계삼소〉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 남쪽에 있는 여산(廬山) 서북쪽 기슭에 동림사(東林寺)라는 절이 있었다. 동진(東晋) 때 혜원(慧遠:335~417) 선사의 도반이었던 혜영(慧永) 스님이 먼저 여산의 서림사(西林寺)에 머물다가 혜원 선사를 이곳으로 오게 한 후 당시의 자사 환이(桓伊)에게 부탁해 산의 동쪽에 혜원 선사를 위해 다시 지은 절이 동림사이다.

혜원 스님은 일찍이 육경(六經)을 배우고 노장학에 정통했던 대학자였다. 출가하여 도안(道安)을 찾아가 수행정진하기도 했고 여산으로 옮겨와 30여년을 지내면서 염불수행을 하면서도 교학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제자 법정(法淨)과 법령(法領)을 서역에 보내 범본을 구해와 계빈국 출신 승가바제에게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과 〈삼법도론(三法度論)〉을 번역하게 했으며, 또 담마류지에게 청하여 〈십송율(十誦律)〉을 번역하게 하였다.

특히 구마라습과 담론을 통해 문답을 나눈 것을 묶어 책으로 엮은 〈대승의장(大乘義章)〉은 그의 사상과 신념을 나타낸 최초의 저술로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 초기 중국의 불교의 이해 사정을 알아 볼 수 있다. 혜원 스님은 또 〈사문불배왕자론(沙門不拜王者論)〉을 지어 '사문은 세속을 떠났기 때문에 오로지 삼보(三寶)를 받들 뿐 왕이나 제후에게 예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혜원 스님이 살던 동림사는 여산 향로봉 아래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했으며, 근처에 폭포가 있는 계곡이 있었다. 혜원은 이 절에 선림을 세우고 서역지방에 있는 불영굴(佛影窟)을 모방해 불영당(佛影堂)을 조성하였다. 그 뒤 이곳에서 염불삼매를 닦는 모임을 만들어 염불 수행에 힘썼다. 이를 후대에 와서 백련사(白蓮社) 혹은 백련결사(白蓮結社)라고 불렀다. 이는 사영운(謝靈運)이 이곳에 와 연못을 파고 흰 연꽃을 심었기 때문에 불러진 말이라고 한다. 이후부터 동림사는 정토종(淨土宗)의 발원지로 여겨져 왔다. 당나라 때 이 절은 매우 번창하다가 무종 때 회창법란(會昌法難)을 만난 뒤 황폐화 되었다가 선종(宣宗) 때 다시 복원 되었다.

송나라 신종 때는 이 절을 동림태평흥국선원(東林太平興國禪院)이라 불렀고 그 뒤 원나라 때 보도(普度)가 이곳에서 〈여산연종보감(廬山蓮宗寶鑑)〉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정토종의 교의를 전한 감진(鑑眞)이 일본에 건너가기 전 이 절에 머물면서 연종(蓮宗) 교의를 연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혜원 스님이 이 절에 있을 때 귀거래사의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사 육수정(陸修靜)이 스님을 찾아와 담론을 나누었는데 이때 혜원이 평소 절 앞의 호계(虎溪)라는 시내의 다리를 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해 놓고도 배웅할 때 담소를 나누며 걷다 미쳐 다리를 건너는 줄도 모르고 이 다리를 건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다리를 건너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세 사람이 크게 웃었다는 고사가 있어 이를 두고 호계삼소(虎溪三笑)라는 말이 생겼다.

〈여산기(廬山記)〉에 "샘물이 절 아래를 돌다 호계로 흘러 들어간다. 옛날에 혜원 스님이 손님을 전송하면서 이곳을 지나는데 때마침 호랑이가 울었기 때문에 호계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뒤로 혜원 스님이 손님을 전송할 때 호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 도연명은 율리(栗里) 남쪽에 살았고 육수정 또한 도를 추구하는 도사였다. 혜원 스님이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전송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마음이 서로 맞아 지나는 줄도 모르고 호계를 지났는데, 이로 인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크게 웃었다"고 전한다

이는 유불선 삼교의 대가가 함께 도담(道談)을 나누며 웃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나중에 격조 높은 선화로까지 승격되었다.

시선(詩仙) 이백(李白)은 '호계삼소'의 설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東林送客處
동림사 절 앞에서 손님 배웅하는데
月出白猿啼
달이 밝게 떠 있고 원숭이가 우는구나.
唉別廬山遠
웃으며 헤어지는 여산의 혜원 스님
何須過虎溪
아뿔싸, 그만 호계의 다리를 건너고 말았군.

분별망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⑯ 머무름이 없는 묘행

復次 須菩提 菩薩 於法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主聲香味觸法布施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
須菩提 菩薩 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
(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
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
(가사량 수보리 어의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
維 上下 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菩薩 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유 상하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복덕 역부역시)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 但應如所敎住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소교주)

"또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마땅히 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모든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相)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우리들의 보시는 남을 위해 도와주고 베푸는 보시에 머물러 한정되고 있으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시는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시(布施)의 '보'는 보편하고 두루함으로 두 가지 상대법이 서로 융통하므로 분별에 머물지 않는 무주(無主)이며, '시'는 산(散)으로 흩어버리는 것으로 분별의 상대법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지 말고 모두 보시하고 버려야합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대상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대상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며, 대상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산장사와 짚신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올 때는 짚신장사를 하는 아들을 근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장사를 하는 아들을 걱정하는데, 어머니의 근심과 걱정은 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대상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며,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눈이 대상을 볼 때 눈이 최초로 본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본 대상들을 처음 본 대상과 조합하여 뇌가 스스로 대상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뇌가 조합해 놓은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모습, 즉 나의 생각,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본 대상들을 기억하고 조합하는 습관적인 모든 행위가 업(業)으로서, 우리들의 앞에 나타난 일체의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은 우리들의 업장(業藏)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깔과 모양을 볼 때 크고 작고, 아름답고 추하다 등의 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 분별망념을 보시하여 버려야 하며,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망념을 보시하고 버려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요!

기도가 쉽고 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나는 기도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3,000일 동안 본회 법당에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신도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천도재는 그동안 많이 지내드렸는데, 아직도 조상영가님 들의 천도재는 계속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원인을 밝혀서 간략하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연락주시는대로 불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영가들은 천도재를 완벽하게 해드렸다고 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염원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영가들이 원하는 일정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강한 파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파장은 영가 장애 이상으로 사업이나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 자손들이 잘 풀려 나가지 않는 여러가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① 1차로 1,000일 기도를 마치면 :
영가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수직 상승하여 우리 집안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호법신장이 되는 초입단계까지 갑니다.

② 2차로 2,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호법신장이 되어 우리 집안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③ 3차로 3,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미륵보살의 정토인 도솔천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영가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법공양 영가특별천도재 3,000일 기도에 입재하는 것입니다.

■ 기도비
100일 기도비는 10만원이며, 100일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모두 삼백만원이면 됩니다.
먼저, 100일 기도 신청비를 보내시면 보내시는 날짜가 신도님 각각의 3,000일 기도 입재일이 됩니다.

◇ 본회 방문 환영합니다 ◇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